

확산적 불교관리를 통한 불교 중국화의 지향과 현실*

강 경 구**

<目次>

I. 서론	IV. 공익자선사업의 전개를 통한 불교 중국화
II. 인재건설을 통한 불교 중국화	V. 해외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 중국화
III. 문화건설을 통한 불교 중국화	VI. 결론

I. 서론

2019년 7월 24일, 중국불교협회 제9회 상무이사회 제3차 회의에서는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에 관한 문건¹⁾을 통과시켰다. 2019~2023년의 5개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고된 이 사업의 핵심은 사회주의 사회에 심도있게 적응하는 불교,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하는 불교의 지향에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5장 주요임무와 중점사업에 제시된 8대 중점사업이다. 그것은 향후 5년간 중국불교협회가 불교계를 이끌고 수행해나갈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는데, 그 8가지에는 정치사상과 종교 관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7312)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1) <坚持佛教中国化方向五年工作规划纲要>(2019~2023), (2019年7月24日中国佛教协会第九届常务理事会第三次会议通过)

법률법규의 학습강화, 중국특색 불교사상의 건설 강화, 청정하고 엄숙한 종교다운 불교 건설, 중국식 불교 제도와 관리 체계의 수립, 중국 특색의 불교교육체계 수립, 중국 특색의 불교문화 창조, 시대적 요구에 맞는 공익 자선사업의 전개, 중국의 통일과 인류운명공동체를 위한 해외 협력과 교류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앞의 4가지 사업계획은 비교적 통제적·수렴적 성격이 짙으며, 뒤의 4가지 사업계획은 확산적·팽창적 성격이 강하다. 말하자면 앞의 4가지는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고, 뒤의 4가지는 불교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통제적·수렴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고찰해본 일이 있거니와²⁾ 본고에서는 확산적·팽창적 측면에서 어떠한 불교중국화가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논의에 앞서 이러한 불교의 확산과 팽창이라는 것이 순수한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영향력 확산 및 팽창과 궤를 같이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점은 미리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 인재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

확산적 불교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불교중국화의 첫째 항목은 불교인재 건설을 통한 중국화로서 이는 중국특색을 갖춘 불교교육체계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11가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정치적 신뢰성을 갖춘 우호적 승려양성, 불교학교 운영의 정확한 방향 견지, 불교학교의 사상교육 체계화, 교수와 학생관리의 규범화, 우수 교사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전국불교학교 연석회의 정기개최, 국제교류 확대, 티베트불교와 남전불교 교육지원, 불교교육의 역사적 연구와 적용, 연수반 활성화, 불교신도의 선발·양성과 활용이 그것이다. 그 각각의 계획

2) 강경구, <통제적 불교관리를 통한 불교중국화의 지향과 현실>, 《中國學》 第70輯, 2020, 1-27쪽.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신뢰성을 갖춘 우호적 승려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사업이 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계획이니만치 종교적 조예와 인품을 갖추는 것은 물론,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종교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종교인재란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호적 인재라는 뜻이다.

중국불교계는 문혁의 영향으로 인해 지도자급 교역자가 부족하여 2~30대의 교역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지만 정치적·종교적 경험과 권위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자오푸추(趙朴初)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교육은 불교재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³⁾으로 인식되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되 이후의 불교인재는 정치적 신뢰성과 종교적 조예, 대중을 이끌 인격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등의 표준을 거듭 제시한다. 5개년 계획에 추가된 이 표준은 원래 시진핑이 제시한 것⁴⁾이었다. 또한 시진핑의 이 표준은 5개년 계획 수립 훨씬 이전부터 일선 종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종교교역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8년 광시(廣西)민족종교위원회에서는 종교인 정기 연수에 있어서 ‘정치적 신뢰성’을 포함한 4가지 표준을 인재양성의 목표로 세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⁵⁾ 5개년 계획은 불교의 인재양성에

3) 1992年赵朴老在上海主持召开“全国汉语系佛教教育工作座谈会”，当时明旸法师、妙湛法师还健在，我们几个是主席团的主席。赵朴老在这个会上大声疾呼：当前佛教最严峻的问题，第一是培养人才，第二是培养人才，第三还是培养人才！所以人才建设很重要。惟贤法师，〈弘扬佛法既要注重三大传统也要加强五大建设〉，https://fo.ifeng.com/banruojiangtang/detail_2014_07/23/37479196_0.shtml

4) 시진핑은 2016년 4월 22일~23일에 개최된 전국종교공작회의에서 중요한 강화를 발표하는데 인재건설의 표준을 정치적 신뢰성[政治上靠得住]，종교적 조예[宗教上有造诣]，관대한 품성[品德上能服众]，그리고 관건적 시기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关键时起作用的标准]는 표준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习近平，〈全面提高新形势下宗教工作水平〉，《新华网》，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5) 二是加强培训学习，提升素质。每年定期组织宗教教职人员开展学习培训活动，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이 정치적 신뢰성이라는 표준을 더욱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불교학교 운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것은 애국적이며 당과 정부의 영도를 받아들이고,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종교인의 양성이라는 구체적 실천내용을 담고 있다.⁶⁾ 이 방향에 따라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 장전불교 불학원의 경우, 불교 소양 외에 문학 소양, 유교 및 도교의 철학 소양, 고문 소양, 현대문 소양 등을 함께 교육한다는 방안이 적극 검토⁷⁾되고 있다. 문화 소양의 제고를 표방하면서 티베트 승려에 대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티베트의 폐쇄적 불교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표방하는 바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언어의 통일을 통한 근본적 중국화를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진에 대해 애국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체계에 애국주의 내용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일부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정체계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정책교육과 공공과

对教职人员分层次的进行年度培训。“宗教政策法规学习月”期间，组织宗教教职人员举办党的十九大精神专题讲座，各宗教团体和宗教活动场所每月组织教职人员开展宗教政策法规专题学习研讨活动。通过举办培训班、交流会等形式努力增强宗教教职人员法律意识和政策水平。积极在宗教界开展“爱国爱教”活动，鼓励和支持宗教界人士参加国家、自治区宗教部门举办的“爱国主义教育培训活动”，以提高教职人员国家意识、公民意识、法律意识。引导宗教教职人员认真贯彻执行国家的宗教政策，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培养打造一支“政治上靠得住、宗教上有造诣、品德上能服众、关键时起作用”的宗教教职人员队伍。广西民宗委，〈广西“五个加强”助推宗教教职人员队伍建设〉，〈广西民宗委网站〉，<http://www.daoisms.org/article/sort028/info-37273.html>

- 6) 我国宗教院校的办学方针是：“培养和造就一支热爱祖国，接受党和政府的领导，坚持走社会主义道路，维护祖国统一和民族团结，有宗教学识，立志从事宗教事业，并联系佛教群众的宗教教职人员队伍。”湛如法师，〈明确办学方向，培养合格僧才——在2005年江苏省佛学院工作座谈会上的讲话摘要〉，<https://honghuash.com/newsinfo/446673.html>
- 7) 月悟法师，〈坚持正确的办学方向〉，<http://www.xuefo.net/nr/article62/616702.html>

정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안정, 심리치료, 전통문화보전, 교육학, 환경보호, 여행관광, 대외교류, 사원관리 등의 교육과정 설치가 제안⁸⁾되고 있다.

교재편찬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에 전공교재편찬방안⁹⁾이 심의, 제정된 바 있고, 2019년 연석회의에서는 전공교재 편찬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의견청취¹⁰⁾가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는데 불교학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문과 수행의 일체화, 학교운영의 총림화[學修一體體, 辦學叢林化] 모델¹¹⁾이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엄격한 규율을 이중삼중으로 적용할 수 있어 종교적, 정치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델로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각 교과목의 학습목표설정, 규정제도의 제정 및 개정, 필수 및 선택과목의 설정에 관한 원칙 등이 수립되어 있다. 필수과목은 기초과목 [시사정치, 어문(고문), 외국어, 역사, 서법]과 불교전공과목[불교사, 불학개론, 불학의례, 사미율의, 보리도차제론, 유교삼경, 사분률, 불교계율학]으로

8) 中国佛教的寺院来源于佛教的发源地——印度的“精舍”，最初是作为出家人生活、修行、进行佛事的场所，也是佛教信徒顶礼膜拜的地方，后来逐步发展为具有多种综合功能的宗教场所。随着时代的变迁、社会的发展，寺院不仅仅只具有弘法利生的传统功能，还肩负起诸如稳定社会、抚慰人心、保存传统文化、传法教育、保护环境、旅游观光、对外交流等重大责任。其中，办好教育成为现代寺院管理的一项重要内容。张琪，〈现代佛教寺院的教育功能——从课程设置浅析中国大陆汉地佛教院校教育〉，《佛学研究》，2010年，105-112쪽.

9) 2018년 6월 30일, 전국 40여개 3대언어계열 불교학교대표회의에서 《全国佛教院校佛教专业课教材编写方案》이 토의심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佛教世界网, 〈40所佛教院校齐聚厦门聚焦教材建设提升办学水平〉, https://www.sohu.com/a/238398298_219795

10) 与会专家学者及佛教院校负责人将听取相关院校对院校专业课教材编写进度的介绍，并提出详细、具体的规划及方案。凤凰网华人佛教, 〈2019年全国佛教院校联席会在无锡灵山开幕〉, <https://feng.ifeng.com/c/7q2wrGP17Y0>

11) 中国佛学院灵岩山分院에서 제창한 학교운영모델로서 전국 불교학교에 널리 채용되고 있다. 调研报告, 〈关于办好佛教院校的实践与思考〉, <http://www.tlfiw.com/xuefo-28678.html>

나닌다. 선택과목은 출판통용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도록 권장되는데 《육조단경》, 《인광대사문초(印光大師文抄)》, 《중국선학통사》, 《중국불교와 유식학》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졸업논문제도와 학칙 역시 교육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불교학교의 학칙에는 승복착용, 독신생활, 채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영군사훈련도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시청각, 전산화 교육과 소규모 강연회,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교육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학생모집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입학연령은 18~25세, 자격은 고등학교[高中] 졸업이나 그에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그 입학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¹²⁾

셋째, 사상교육 및 공공교육의 체계화로서 이를 요구하는 공문¹³⁾이 수차 발송되었으며 특히 정치이론과목의 시수가 전체 시수의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치이론과목에는 시진핑 사상, 중국문화, 중국역사, 종교법규 등이 포함된다.

넷째, 교사와 학생관리의 규범화 추진으로서 종교학교의 ‘두 개 판법[兩個辦法]’¹⁴⁾이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두 규정 외에 다양한 시행세칙¹⁵⁾들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교육의 규범화,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불교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학교가 당의 통제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수교사 및 유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이다. 우수교사 선발은 관련규정¹⁶⁾에 의거하여 진행되며 2018년 전국 불교학교에 재직 중인 42명

12) 이상의 내용은 调研报告, 〈关于办好佛教院校的实践与思考〉 참조, <http://www.tlfiw.com/xuefo-28678.html>

13) 〈关于加强宗教院校公共课程教学的通知〉, 〈宗教院校公共课程体系方案〉, 〈宗教院校公共课教材推荐目录〉

14) 〈全国宗教院校教师职称评审办法〉, 〈全国宗教院校学位授予办法〉

15) 〈全国汉传佛教院校学位授予办法实施细则〉

의 선발인원에 대한 ‘우수교사’ 영예칭호 수여식이 처음으로 거행되었고, 2020년 6월 현재, 각 성 단위의 우수교수심사가 진행, 혹은 완료된 상태에 있다. 이는 우수한 실천사례를 정책화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 선발의 목적은 불교학교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해주는 데 있다고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그 선발에 정치적 표준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유학생 장학금은 2017년에 관련규정¹⁷⁾이 제정되어 2018년 불교협회 명의로 장학금 신청에 관한 공지가 발표되었다. 주로 우수한 불학인재의 홍콩, 마카오, 타이완으로의 유학을 지원하며 출가 승려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석사 3년, 박사 5년의 장학금 지원을 내용¹⁸⁾으로 하고 있다.

여섯째, 불교연석회의 개최로서 2016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불교학교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우수교사 표창과 유학생 장학금 제도도 이 연석회의 결의로 설치된 것이다.

일곱째, 불교교육의 국제교류 확대방안이다. 교류내용은 주로 홍콩과 타이완의 불교인재 양성 경험에 대한 학습이다. 구체적 교류계획에는 교사, 유학생, 방문학자의 상호과견과 외국 불교학교의 교육제도에 대한 다층적 탐방 활동 및 홍콩과 대만의 경험 학습, 국제적 교류와 동향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불교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다.

여덟째, 티베트불교와 남전불교 교육사업의 지원이다. 티베트불교의 전통적 교육제도는 불교사적으로 보아도 가장 우수한 교육제도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중국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여 겐룩과의 최고학위인 계세 하람바[拉让巴]의 제도를 축소하고 각 교과 통합의 현대식

16) 〈全国佛学院校“优秀教师”评选办法〉, 〈中国佛教协会关于开展全国佛学院校优秀教师评选工作的通知〉

17) 〈全国佛学院校留学生奖学金申请办法〉

18) 이에 대해서는 中国佛教协会, 〈2018年中国佛教协会留学生奖学金申请通知〉, <http://www.chinabuddhism.com.cn/xzzq/xzzq1/2018-09-27/40.html?from=groupmessage>

학위인 토람바[拓然巴] 제도로 전환하는 중에 있다. 장어게고급불학원(藏語系高級佛學院)에서 주관하는 이 현대식 학위제도를 통해 2004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15년 동안 208명의 토람바 학위취득자가 배출되었다.¹⁹⁾ 계세 하람바가 수십 년의 수행과 연구에 헌신한 라마에게 수여되는 겔룩과의 전통 학위로서 극소수의 종교적 권위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면 토람바는 대략 3년 간의 학습과정과 시험, 논문답변의 절차를 거친 인재에게 교과 통합의 차원에서 수여하는 것이므로 이후 토람바가 하람바를 숫적으로 압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 토람바 학위 취득자가 당과 정부의 지원과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전체 티베트불교계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남전불교, 그러니까 빨리어계 고급불학원의 건설은 윈난성²⁰⁾ 소수민족의 관리정책과 연계되어 진행²¹⁾되고 있다. 중국의 빨리어계 고급불학

19) 藏传佛教学衔制度自2004年实施以来, 已走过了15年的历程。藏传佛教学衔制度从无到有、逐渐规范, 特别是高级学衔教育从最初一年一个班十几人, 到现在一年三个班几十人, 办学逐渐规范、教学日趋成熟、规模稳步扩大。据了解, 截至目前, 获得“拓然巴”高级学衔的有208人, 获得高级佛学院经师资格的有100人, 已成为藏传佛教传承发展的中坚力量。统战新语, 〈40位学僧喜获藏传佛教“拓然巴”高级学衔, 这可不是容易事儿〉,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336952301625821&wfr=spider&for=pc>

20) 빨리어계 불교는 윈난성에만 분포되어 있다. 1,700여 사원에 1,000여명의 승려가 있을 뿐으로서 600~700개의 사원에 승려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얀마에서 건너온 승려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교역자의 배양이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 있다. 而巴利语系佛教为云南所独有, 信众分布于西双版纳、德宏、临沧、普洱的边界地区, 目前有1700余座南传佛教寺院, 但仅有1000人左右的僧侣, 600到700座寺庙处于有寺无僧的局面, 而且许多僧人直接来自于缅甸。李映青, 〈中国首座巴利语系高级佛学院明年在西双版纳开建〉, http://www.chinadaily.com.cn/dfpd/yn/bwzg/2012-12/17/content_16023145.htm

21) 빨리어계 고급불학원의 건설과 이를 통한 인재의 양성은 변방지역의 사회안정, 외부세력의 침투 방지, 남전불교의 애국 교역자 양성, 동남아 등 불교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일대일로 건설의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中国巴利语系高级佛学院是中国南传佛教的教学研究机构, 项目的建设是贯彻党的宗教信仰自由政策, 维护边疆社会稳定, 有效抵御境外利用宗教进行渗透和破坏活动, 同时有利于开展巴利语系佛学理论研究、培养南传佛教高素质的爱国爱教僧

원은 2020년, 시쌍반나(西雙版納)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윈난 지역 소수민족의 포용정책의 일환이고, 외부적으로는 남방 빨리어계 불교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에 해당한다.

아홉째, 불교 교육의 역사적 연구와 적용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총림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교육체제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불학원에서는 어떻게 학문과 수행의 일체화[學修一體化], 혹은 이해와 실천의 병행[解行並進]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의 습득과 실제적 수행의 불균형은 당대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²²⁾로 지적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총림제도의 적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자오푸추는 ‘학승 생활관리의 총림화, 총림학원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일부 불학원에서는 자오푸추의 말을 빌려 ‘학문과 수행의 일체화, 생활의 총림화, 혹은 학교의 총림화, 총림학원화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총림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실천을 지도할 이념과 구체적 적용방안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이 작업 역시 상당한 실천경험을 축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열째, 불교인재의 상시적 배양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학교교육외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징후이(淨慧)선사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사원의 학습기지화, 자율학습의 강화, 사원생활에서의 학문과 수행 일체화, 연구소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학원 교육에 더해 사원교육을 병행하겠다는데 있다. 이 계획에

才, 提升边疆少数民族地区教育水平, 保护与传承傣民族等民族传统文化, 促进民族宗教的长远健康发展, 为边疆经济社会发展创造稳定而良好的社会环境, 增进东南亚、南亚佛学国际交往, 促进“一带一路”建设。州民宗局, 〈中国巴利语系高级佛学院建设项目社会稳定风险评估公示〉, https://zmzj.xsbn.gov.cn/306.news.s.detail.dhtml?news_id=2475

22) 学修关系失衡是当代佛学院教育出现的一较为普遍的现象, 是觉修关系没有处理好的表现, 黄夏年, 〈佛教的学与修〉, <http://www.xuefo.net/nr/article52/515494.htm>
<http://www.tlfiw.com/xuefo-1296.html>

대해 대부분의 불교계 인사들이 적극 동의²³⁾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상시적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도 애국주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열한 번째, 불교신도의 인재양성과 활용에 대한 것으로 불교협회를 비롯한 각 사원의 신도대중들이 사원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논의이다. 이와 관련하여 난양시(南陽市) 불교협회의 사원민주관리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민주관리위원회의 주임은 원칙적으로 사원의 주지가 맡는다. 그 성원은 주요 반수(班首)와 집사(執事)로 구성되는데, 그 밖에 애국애교하며 행동이 바르고, 일 처리가 공정하며, 상당한 조직능력과 업무능력을 갖춘 거사를 참여시킨다.²⁴⁾

이 추진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불교사원에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특히 장전불교사원의 관리에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Ⅲ. 문화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

불교문화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불교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전체 8대 사업 중 6번째 중점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불교문화의 중국화는 사회주의 중국에 복무할 수 있는 문화의 건설, 차별화된 중국불교문화의 건설을 지향한다. 대체적으로 불교문화는 생태주의적 측면에서

23) 释振辉, 〈谈佛教院校的僧格教育〉, http://blog.sina.com.cn/s/blog_9c2f907d01015a2k.html

24) 民管会主任原则上由寺院住持担任, 其成员由主要班首、执事组成, 亦成吸收个别爱国爱教、作风正派、办事公道, 有一定组织和工作能力的居士参加。南阳市佛教协会, 〈南阳市佛教寺院民主管理制度〉, http://www.cnfxh.com/news_content.asp?id=1771

현대적 전환의 가치가 있다는 점²⁵⁾, 문화건설과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던 광범위한 한전불교문화권 내에서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불교문화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학습을 통해 현대적 구현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²⁶⁾, 사회주의사회 도덕 건설에 있어서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중국특색을 갖는 인문적 자산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대적 전환과 사회적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중국화 계획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문화의 중국화 추진은 중화민족의 동질성 강화와 사회주의적 활용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불교행사를 통한 전파와 활용, 불교협회 산하 문화기구와 불교문화교육기금의 적극 활용, 불교문화의 역사적 연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 등의 중점노력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화민족의 민족적 동질성 강화와 사회주의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학습과 교육, 불교문화의 유익한 내용의 발굴, 사회주의적 해석, 이성적 불교문화의 건설이 실천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불교문화의 건설에는 중화우수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파가 먼저 얘기되는데, 불교문화의 건설이 중화우수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중화우수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파는 시진핑이 거듭 강조한 것으로서 모든 문화적 논의의 첫머리를 차지한다. 시진핑이 중화우수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중국의 내적 단결²⁷⁾과 외적 확장

25) 불교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생태적 평형을 유지해온 전통이 있고, 지속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전환의 가치가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崔文奎, 〈从生态整体主义看中国佛教文化与马克思主义思想的共通点〉, 《五台山研究》, 2020.03.

26) 魏道儒, 〈人类文明和谐共生的样板:中韩佛教文化共建〉, 《世界宗教研究》, 2020.02.

27) 자본주의경제의 심화에 따라 중국사회에 조짐을 보인 탈중국화, 종교원리주의(=종교극단주의), 맹목적 배타주의, 혹은 서양제일주의 등 극단적 사조의 출현은 중국의 내적 단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近年来, “去中国化”倾向在个别地区的某些宗教信仰者当中暗流涌动, 宗教极端主义在一些地方兴

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우수전통문화와 관련하여 학습과 연구, 문화적 자신감, 사회주의핵심가치관 배양, 사상도덕의 건설, 현대중국의 철학과 통치이념, 문물보호, 문명교류, 다양한 수용과 취사선택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²⁸⁾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독서, 연수, 토론회, 체험활동 등 일련의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중국특색을 갖춘 불교문화의 건설은 전통문화의 학습과 전파라는 큰 범주 내에서 그 현대적 변용과 활용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시대 중국특색불교문화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국특색불교문화의 특징으로서 철학적 측면에서 유교 및 도교와의 통섭이 있었다는 점, 풍습과 도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 다양한 학문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 문학적 신세계 발견과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 예술적 경계를 새롭게 개척했다는 점²⁹⁾ 등이 지목된다. 이러한 중국전통불교문화에 사회주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 공산당 독재, 국가주의 문화 등의 신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무엇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신시대 중국특색불교문화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에의 역할수행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하고, 유익하며, 적극적이고, 향상적인 내용의 발굴과 전파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종교원리주의적 경향의 차단을 위해 이성적이며, 포용적인 불교문화의 품격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특색문화건설사업은 주로 중국과의 문화적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티베트불교의 동화방안으로 제시되고 실천될 것으로 보인다.

风作浪。与此同时，中外文明交往尤其是中西文明交往不断遭遇盲目排外和全盘西化两种极端思潮的干扰。李利安，〈从习近平主席系列重要讲话看中国特色佛教文化的形成、特性与精神底蕴〉，http://www.fjnet.com/shishi/nr/201812/t20181206_271896.htm

28) 이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张蔚萍，〈学习和领会习近平总书记关于传承弘扬中华优秀传统文化的论述〉，〈清风官网〉，https://www.sohu.com/a/307280018_100101617

29) 华阅文章网，〈对中国佛教文化的认识〉，<https://www.huayue119.com/sanwen/123241.html>

다음으로 불교의 전통행사를 도덕교육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 있다. 불교의 전통행사는 석가모니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불탄절, 출가일, 성도재, 열반일과 우란분절, 그리고 기타 다양한 신앙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재일들이 포함된다. 또 티베트불교의 경우, 전 사회적 기원법회인 전대소(傳大召)와 전소소(傳小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전국종교단체연석회의에서 불교협회 부회장 연취(演覺)는 불탄절이나 우란분절, 성도재 등 불교행사를 자비제세의 정신과 효도의 문화를 널리 선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등의 발언³⁰⁾을 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6월, 홍불사(洪佛寺)의 승려들은 단오절에 개최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에 7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절을 하고 행복을 축원하는 등, 효도문화를 선양하는 행사³¹⁾를 거행하였고, 2019년 9월, 오운사(虞城五雲寺)와 석불사[濟源石佛寺] 등에서는 중추절을 기념하여 노인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³²⁾를 가졌다. 이러한 전통미덕 선양 운동이 전체 사찰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교협회 산하의 문화기구와 문화교육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불교협회 산하의 대표적 문화기구에는 불교문화연구소가 있다. 불교문화연구소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7년에 설립되어 《불교문화》와 《불학연구》 등의 간행물을 내고 있으며 불교문화 현대화와 현대사회 교화[化現代]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소에서는 2015~2020년에 이르는 5년의 기간 동안 학술출판 성과물 산출계획,

30) 在演觉法师的讲述中，我们不难发现佛教对中华传统文化传承的多样性，包括举办传统文化艺术研修班，建立文物古籍保护整理项目。同时，也以“佛诞节”“盂兰盆节”“腊八节”等佛教节日为契机，举办相关活动，联合信众，弘扬慈悲济世精神和报恩孝亲文化，传承中华优秀传统文化，引领佛教界增强文化自信和民族自豪感。岚靖德，〈新风尚！看当代佛教界如何与传统文化交融浸润 共同成长〉，<http://www.sdxkjxc.com/ctwh/7612.html>

31) 偲睿关工委，〈传承优秀传统文化，中国洪佛寺常住僧众端午敬亲，为老人磕头行孝〉，<https://www.meipian.cn/265mixdh>

32) 三愿吉祥文化联谊会，〈践行三愿之老人吉祥愿——迎中秋“五云寺”、“石佛寺”僧众看望慰问贫困老人〉，<https://www.meipian.cn/2dhe50r6>

대중교화추진계획, 국제교류협력계획의 세 범주에 걸쳐 14개 항목의 실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먼저 가시적 성과물 산출계획에는 일대일로 불교 문화 연구항목³³⁾, 국제불교학과 중국종교저작 상호번역항목³⁴⁾, 인간불교 사상과제도 연구항목³⁵⁾, 불교사상건설연구항목의 4가지 연구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불학연구》의 계속 출판도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 범주는 대중화 추진계획으로서 '불교경전독서총서' 시리즈의 출판항목, 일대일로 문화 시리즈 강좌, 현장(玄奘) 시리즈 강좌, 중국불교문화연구소의 홈페이지 운영, 위챗, 웨이보 등 현대문명과 기술을 이용한 불교문화의 배양과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전파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불교문화》 잡지의 출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범주는 국제교류협력 계획이다. 여기에는 명산대찰 문화건설 항목, 중국불교 인터넷교육정품 교육과정 개발계획³⁶⁾, 현장(玄奘)연구센터, 현장(玄奘)역경원을 설립하여 영어실력을 갖춘 불교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 현장대사상(玄奘大師獎)상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중·일 동아학술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동국대학, 금강대학의 교류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불교문화기구에 대한 지원원칙이 천명되어 있는데 후난성의 선산불교문화연구중심(船山佛教文化研究中心), 난징불교문화연구중심(南京佛教文化研究中心), 구화산불교문화연구중심(九華山佛文化研究中心), 우시불교문화연구중심(無錫佛教文化研究中心), 푸젠성불교문화연구회(福建省佛

33) 학술간행물의 출간이 계획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는데 '一帶一路佛教文化研究'와 '中國佛教研究論叢'의 과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34) 이 항목의 구체적 성과로 2015년에 미국의 연구성과에 대한 중국어번역본이 출판되었다. (美)柯嘉豪《佛教对中国物质文化的影响》, (美)柏夷《道教研究论集》 등이 그것이다.

35) 이 항목에는 세계불교논단연구과제와 인간불교연구과제의 개선과 완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36) 불교관련 무크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서 불교인재의 배양, 불학원 법사연수, 교육보조, 문화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다.

敎文化研究会) 등 성급·시급 불교문화연구기관, 위셴불교문화연구중심(盩厔縣佛教文化研究中心) 등의 현급 연구기관, 그리고 범정산불교문화연구원(梵淨山佛教文化研究院)³⁷⁾과 같은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이 설립되어 불교문화의 연구, 계승, 전시, 발전, 대외교류와 인력양성을 표방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특색불교문화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연구, 정리 및 시사점 학습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특색불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연구라는 연구항목이 사회과학원기금의 중대항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9년에 관련 연구내용이 3권의 책³⁸⁾으로 정리되어 출판된 바 있다. 여기에는 사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밖에 불교문물과 불교문화유산의 보호사업 역시 문화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형태를 갖는 불교문물에 속하는 불교유적지와 건물 및 박물관 등에 소장된 불상과 경전, 회화, 법구 등에 대한 문물보호기관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2005년 이후 정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³⁹⁾하면서 불교의 정신문물에 대한 보호사업이 새로운 실천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중요도에 따라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되어 등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음악, 회곡, 의례, 의학기술, 조각예술, 인쇄기술, 건축기술과 장식기능 등이 무형문화유산 등재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

37) 2012년 귀주(貴州) 동인대학(銅仁學院)에 설립된 부설연구원으로서 범정산(梵淨山)을 마복도량으로 건설하겠다는 동인시의 계획과 맞물려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梵淨山佛教文化研究院〉, <http://www.gztrc.edu.cn/index.php/cms/item-view-id-6971.shtml>

38) 사회과학원 기금의 중대항목명이 ‘儒佛道三教关系视域下中国特色佛教文化的传承与发展研究’이었고, 출판물의 제목 역시 동일하다. 관련내용은 吳飛, 〈推动中国特色佛教文化传承与发展〉, 中国社会科学网 http://www.cssn.cn/zjx/zjx_yx/201905/t20190507_4875299.shtml

39) 이것은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에서는 2005년 관련 공문[〈关于加强我国非物质文化遗产保护工作的通知〉]을 발송되었으며, 2018년에는 관련법[〈中华人民共和国非物质文化遗产法〉]이 입법공표되었다.

해 국가종교국과 불교협회에서는 정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정리를 통해 등재 후보를 자체선정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으며, 특히 국가의 문화지위, 문화주권, 문화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⁰⁾

문화건설의 결론격으로 불교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참신한 발전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시진핑이 강조한 양창(兩創)의 불교판이다. 창조적 전환이란 전통문화에 대해 현대적 형식과 내용을 부여하여 생명력을 되살리는 일을 말하고, 참신한 발전이란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보완과 개선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일을 말한다.⁴¹⁾

IV. 공익자선사업의 전개를 통한 불교중국화

불교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정신을 공익자선사업과 같은 구체적 사업으로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협회에서는 자선사업을 특히 중시하여 〈중국불교협회장정〉에도 ‘사회공익자선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에 복을 짓고 대중을 이롭게 한다’⁴²⁾는 조문을 설치하여 자선사업을 협회의 주된 임무로 명기해놓고 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가는 진리의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역사에서 자선사업의 모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남북조 시기 각

40) 이에 대해서는 徐艺乙, 〈佛教文化中的文化遗产保护〉, 《凤凰佛教》, <http://m.tlfiw.com/xuefo-2175.html>

41) 所谓创造性转化, 就是要按照时代特点和要求, 对那些至今仍有借鉴价值的内涵和陈旧的表现形式加以改造, 赋予其新的时代内涵和现代表达形式, 激活其生命力。所谓创新性发展, 就是要按照时代的新进步新进展, 对中国优秀传统文化的内涵加以补充、拓展、完善, 增强其影响力和感召力。王艺霖, 〈习近平对中国优秀传统文化的创造性转化和创新性发展〉, <http://theory.people.com.cn/n1/2016/0203/c40531-28108648.html>

42) 开展社会公益慈善事业, 造福社会, 利益人群。中国佛教协会, 〈中国佛教协会章程〉, <http://www.chinabuddhism.com.cn/djc/xdzc/2015-04-27/8701.html>

사원에 상설 자선기구[无尽藏]를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한 역사도 있고, 특히 상설 자선기구였던 무진장(無盡藏)은 세계 최초의 자선기금단체로서 일본의 무진회사(無盡會社)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고 얘기된다. 남제(南齊)에는 빈민구호 기구인 육질관(六疾館)이 설치운영되었고, 북위(北魏)에는 유사한 성격의 승기호(僧祇戶)가 운영되었으며, 안사(安史)의 난이 있던 당나라 시기, 하택신회(荷澤神會)가 그랬던 것처럼 대중들의 헌금[香水錢]을 모아 국난극복을 위한 군비에 충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당대에는 비전양병방(悲田養病坊), 송대에는 복전원(福田院)이 상설운영⁴³⁾되기도 하였다. 명청시기에는 선회(善會), 선당(善堂)이라는 국가사회적 자선기관이 대부분 사원과 승려에 의해 관리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타이완 최대의 불교자선기관인 자재공덕회(慈濟功德會)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자선사업의 전세계적 모델’⁴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불교의 자선사업 실천에는 불교라는 종교적 영향력의 발휘를 최소화하면서 그 사회적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라는 당과 국가의 요구가 제기되어 있다. 불교에 모여드는 자금을 자선사업으로 적극 유도하되 그 종교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뜻이다. 불교협회에서는 당과 국가의 이러한 요구에 호응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교 자선사업의 실천을 자선공덕회에서 자선기금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의에 의하면 불교의 자선공덕회가 개인성, 내재

43) 在我国古代，佛教寺院由于组织制度上的优势，赢得官方与民众的信任，承办各项社会慈善事业。南北朝时，佛教寺院设立“无尽藏”，用以救济贫穷百姓，是世界上最古老的慈善基金会，流传到日本称作“无尽会社”。到隋唐时，三阶教所创的无尽藏规模空前，社会影响力巨大；唐代的“悲田养病坊”、宋代的“福田院”。法音编辑部，〈发扬佛教慈悲济世精神积极融入慈善公益事业〉，《佛教在线》，http://www.fjnet.com/jjdt/tj/201009/t20100908_168435.htm

44) 慈济功德会，被认为是佛教慈善事业全球化的典范凸显名山大寺在中国佛教的重要地位。邓莉雅，〈从功德会到基金会：佛教慈善组织的现代转型〉，《凤凰网佛教》，https://fo.ifeng.com/a/20151020/41493586_0.shtml

성,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현대사회에 필요한 자선은 사회성, 공공성, 외재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 및 불교협회에서는 이 보시의 실천을 종교적·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사회적 차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⁴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을 종교자선의 현대적 전환이라 부르고 있다.

전통적 종교자선은 종교적 신앙행위의 표현으로서, 개인성, 내재성, 도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 신앙에 기초하여 개인이 주도하는 자발적 행위였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 동기나 선행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심령적 차원의 제고, 내재적 수양의 제고가 더 중시되었다. 현대의 공익자선사업은 사회성, 대중성, 공공성, 외재성의 특징을 갖는다. 개인의 자발적 행위는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행위로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종교신앙을 기초로 하지 않고, 현대시민사회의 공공정신을 기초로 한다. 자선은 시민이 담당해야 할 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속한다. 공익자선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공공사업이 되었다.⁴⁶⁾

요컨대 종교적 자선에서 사회적 자선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요구에 호응하여 불교계에서도 종교적 자선과 현대적 자선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대표적으로 불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불교자선네트워크 활동의 개혁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불교협회의 자선공익위원회에서는 허베이성(河北

45) 중국의 경우, 《基金会管理条例》를 제정하여 모든 기금회를 관리하고 있다. 기금회는 기금의 관리, 증식시키기 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 활동의 수익은 반드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6) 传统宗教慈善是宗教性信仰行为的表现, 具有个人性、内在性、道德性特点。即它是基于个人信仰的由个人主导的自发行为, 更注重施善者的主观动机, 以及通过善行所达到的心灵境界和内在修养的提升。现代公益慈善则具有社会性、全民性、公共性、外在性的特征。个人自发的行为变成有组织地进行的社会性行为; 不再以宗教信仰为基础, 而是以现代公民社会的公共精神为基础, 强调慈善是公民应当担当的对社会和他人的责任和义务; 公益慈善成为公民参与的社会公共事业。邓莉雅, 〈从功德会到基金会: 佛教慈善组织的现代转型〉, 《凤凰网佛教》, https://fo.ifeng.com/a/20151020/41493586_0.shtml

省) 적십자기금회와 합작하여 새로운 기금위원회[河北省紅十字基金會佛教助困專項基金委員會]를 설립하여 특별면세 구호계좌[專項免稅救助賬戶]를 설치하는 혜택을 받는다. 불교와 적십자의 조직이 결합하여 종교성을 탈각하고 사회성, 공공성, 외재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 명칭을 보면 결국 불교의 자선활동이 적십자기금회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교협회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제1회 자선공익위원회를 통한 구체적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자선사업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으로 항조우 영은사(靈隱寺) 등 불교계에서는 서부건설, 자선총회, 장애인기금회, 장애이동치료센터, 재해지역구호 등을 위해 전후 수천만 위안의 자선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불교의 자선활동이 직접 자선대상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에 재기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은사에서는 2018 탁발행각의 이벤트를 통해 모금된 50만원의 기금을 저장성 순안현 푸원향(富文鄉)의 향촌문화건설에 쓰도록 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전액 항조우시의 '춘풍행동(春風行動)'⁴⁷⁾에 기부하였다. 역시 사원에서 기부를 받아 다시 국가사업이나 지자체의 자선활동에 재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직접적인 자선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난닝관음선사(南寧觀音禪寺)에서는 12개의 빈곤가정에 쌀과 기름, 현금 12,000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불교사찰이 자선 대상과 직접 접촉한다는 점에서 위 영은사의 모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47) 춘풍행동은 도시 농민공들을 돕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합법권익을 보장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항주시의 춘풍행동은 시장위와 시정부의 주도로 곤난에 처한 대중들의 생활문제와 취업문제를 해결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항주모델로 불린다. 〈杭州春風行動網〉, <http://www.hzcfxd.org/>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빈곤가정 돕기 전투전략⁴⁸⁾에 대한 적극적 호응의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

국경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자선활동 역시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빈민구제활동과 향촌진흥정책에 호응하는 일이다. 2016년 중국불교협회 자선공익위원회에서는 각 지역의 공익기금회와 연대⁴⁹⁾하여 모금한 100만 위안의 자선기금을 윈난(雲南) 지역 남전불교사원과 불학원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자선활동은 빈민구제 및 향촌개발의 의미와 함께 한전불교와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교의 자선활동이 공산당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빈민구제활동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당과 정부에서는 ‘빈민지원공장[扶貧車間]’이라 불리는 향촌 가공공장, 현대화농장 등을 설치하여 시골을 떠나는 일 없이 농업과 취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교의 자선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의 빈민구제활동은 전면적 소강사회의 구현에 있으므로 불교협회의 자선활동 역시 향촌이나 빈민계층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취지 또한 소강사회의 전면구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선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최대화하되 그 자선활동의 주체인 불교의 종교성은 희석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과 정부가 의도하는 바인 것으로 보인다. 자선사업의 운영모델의 하나로 꼽히는 후베이성(湖北省)의 불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과 정보의 빈곤돕기 공정[科技與信息扶貧工程]’도 마찬가지로

48) 扶贫攻坚 전략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빈곤탈출과 향촌진흥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欧洲时报网, 〈扶贫攻坚 中国在行动〉, <https://baijiahao.baidu.com/s?id=1672450229256398184&wfr=spider&for=pc>

49) 中国佛教协会慈善公益委员会联合北京市仁爱慈善基金会、四川文殊院福慧慈善功德会、河北三宝佛教慈善基金会、江苏省佛教协会、苏州和合文化基金会、苏州弘化社慈善基金会、常州宝林慈善基金会、扬州文峰慈善基金会。共募集慈善资金100万元, 于2016年2月19日至25日赴云南省边境地区的部分南传佛教寺院开展慈善活动, 并对南传佛教的现状进行调研。韩立鹤, 〈中国佛教协会赴云南边境地区开展慈善调研活动〉, <http://www.jsfj.net/html/fjzx/jdxw/6522.html>

이다. 후베이성 불교협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농업기술정보 전달, 노동시장 개척, 농산물 판매, 자금유치, 여행상품 개발 등의 영역을 개척하여 상당한 업적을 거둔 것으로 얘기되며 빈민돕기 자선활동의 일대 업적으로 꼽히고 있다.⁵⁰⁾ 그런데 이 역시 결국은 당과 국가의 향촌발전정책의 큰 범주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불교자선사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에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07~2019년에 이르기까지 불교계가 자선사업에 투입한 금액과 물자는 총 18억 6천만위안에 달하는 것⁵¹⁾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불교의 자선활동이 종교성 탈각과 공익성 강화라는 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를 위해 제도화, 전문화, 규범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당과 정부 역시 종교의 자선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자선공익사업은 사회단체기금관리규정, 기금회 관리조례, 사회복지관리방법, 의료기구관리조례, 의료기구관리세칙 등 다양한 규정의 관리대상⁵²⁾이 된다. 제반 종교행위에 대한 최고의 법률적·정치

50) 先后建成的全国部分乡镇网站, 在传递农业科技信息, 劳务输出, 农副产品销售, 招商引资, 发展旅游业,有的乡镇已收到了明显效益, 开通的网站, 播放的信息, 各级领导、各级新闻机构给予了很高的评价, 认为科技信息扶贫,是一大创举, 也是中国网络发展的很好模式, 它的建立和开通,为促进社会和谐, 发挥慈善扶贫作出了积极的贡献. 见忍, 〈浅谈佛教慈悲济世对和谐社会的作用〉, 《佛教在线》, http://www.fjnet.com/fjlw/200907/t20090713_127972_1.htm

51) 明杰法师, 〈中佛协发言人介绍佛教界开展慈善公益活动情况和经验〉, <https://www.jingangcjj.com/foxuezs/16025.html>

52) 宗教团体可依照《社会团体设立专项基金管理机构暂行规定》的规定, 申请设立专项基金管理机构。宗教界可依照《基金会管理条例》的规定, 申请设立基金会; 依照民政部《社会福利机构管理暂行办法》规定, 申请设立为老年人、残疾人提供养护、康复、托管等服务的社会福利机构, 并进行民办非企业单位登记; 依照《医疗机构管理条例》、《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等规定, 申请设立非营利性医疗机构, 并进行民办非企业单位登记。宗教界依法设立的公益慈善组织, 应当接受政府有关部门依法进行的监督管理。国宗发(2012)6号, 〈关于鼓励和规范宗教界从事公益慈善活动的意见〉, <http://www.chinabuddhism.com.cn/dfg1/zcfg1/2017-07-24/13131.html>

적 권위를 갖는 수정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종교교역자의 공익자선활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제38조]⁵³⁾, 공익자선활동에 대한 적극적 요구[제52조]⁵⁴⁾, 공익자선사업과 선교의 연계 금지[제56조]⁵⁵⁾ 등의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공익자선활동은 각 종교의 기본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인정을 통해 종교의 사회적 활동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선활동은 정부의 주된 정책지향의 하나이며 국가종교사무국 또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계는 공익자선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규모 자선기금회 등과 같은 조직을 연이어 설립하게 되었다. 특히 종교계의 공익자선활동은 자선법⁵⁶⁾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자선활동이 공중도덕의 함양과 사회화합을 실현하여 ‘중국의 꿈’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교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종교계의 자선활동이 종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⁵⁷⁾

자선법과 종교사무조례에 더해 구체적 구속력을 갖는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종교국과 중앙통전부 등 6개 중앙기관에서 공동으로

53) 제38조: 종교교역자의 종교활동 주관, 종교의식 거행, 종교전적 정리, 종교문화 연구, 공익자선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p.21.

54) 제52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는 비영리조직이므로 그 재산과 수입은 중지와 부합하는 활동 및 공익자선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분배해서는 안 된다.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2018, p.25.

55) 제56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 종교교역자는 법에 의거하여 공익자선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익자선활동을 이용하여 선교할 수 없다.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2018, p.26.

56) 〈中华人民共和国慈善法〉(2016.09.01.)

57)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p.115.

하달한 공익자선활동에 대한 의견⁵⁸⁾이다. 이 의견은 각 지역의 통진부, 종교국, 발전개혁위, 민정청, 세무국 등의 기관에 하달되어 실질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문건에서는 종교의 자선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합법적 권익의 보호, 법에 의한 관리,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관의 지도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5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불교의 자선활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모델의 제시, 제도의 완비, 자선 영역의 개척, 자선사업 전문인재의 양성 등을 실천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V. 해외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중국화

다음으로 해외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중국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해외교류 사업의 목적은 중국의 통일과 세계적 영향력 행사에 있으며,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과의 교류, 한일과의 교류, 아시아 교류, 세계 교류의 각 단계에 상응하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불교교류를 통해 홍콩, 마카오의 국가의식과 애국정신을 강화하여 외형적인 통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계획, 타이완의 불교계와 그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신적 공감대를 회복하여 실질적 통일을 추동하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 셋째, 화교 불교계와의 우의를 강화하여 그들의 문화적 귀속감과 민족적 구심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넷째, 한전불교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불교계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전불교권과 우의를 심화하며, 서구불교계와 교류를 확대하여 일대일로의 건설에 우호적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다

58) 国家宗教事务局, 中共中央统战部,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民政部,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鼓励和规范宗教界从事公益慈善活动的意见〉, 2016. <http://www.chinabuddhism.com.cn/zdfg1/zcfg1/2017-07-24/13131.html>

셋째, 세계불교논단을 통해 중국불교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계획들은 불교교류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패러다임을 세계에 구축하겠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콩, 마카오와의 교류협작 강화계획이 있다. 홍콩과 마카오의 애국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원래 공산당 통일전선 사업의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1997년 홍콩반환, 1999년 마카오 반환이 성사된 뒤 이 지역과의 정신적, 문화적 동질성 확보를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게 된다. 그래서 홍콩 및 마카오와의 동질성 확보는 통일전선사업의 주된 내용⁵⁹⁾이 된다.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은 불교협회 스스로 이 통일전선사업을 추진하는 한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전통의 공유를 통한 교류⁶⁰⁾, 각종 법회의 참석을 통한 교류⁶¹⁾, 각종 행사의 공동개최를 통한 교류⁶²⁾, 세계불교논단 및 별도의 논단 개최를 통한 교류⁶³⁾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교류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59) <关于加强统一战线工作的决定>(2000.12.31.), <关于进一步加强统一战线工作的决定>(2005.12.21.) 등이 홍콩, 마카오 반환 이후의 통일전선사업 내용을 담고 있으며,

60) 특히 2012년 홍콩 및 마카오 불교계와회 협조로 개최한 석가모니 정갈사리 친견법회 개최는 이 지역 불교교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원래 2009년 석가모니 정갈사리는 난징(南京) 대보은사(大报恩寺)의 탑에서 발굴되어 2010년 공개된 것이었다. 그 교류상황에 대해서는 微言宗教, <同根同源共饮濠江水 法乳一脉合筑同心圆--内地与澳门佛教界20年交流回顾>, https://www.sohu.com/a/361850487_120109092

61) 2018년 홍콩 보린선사(香港宝莲禅寺)에서 개최된 쯤자오(健钊)법사의 열반추모법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일 등의 활동이 있다. 代耀, <中国佛教协会代表团赴港出席健钊长老追思赞颂法会>, <http://www.chinabuddhism.com.cn/e/action/ShowInfo.php?classid=506&id=39340>

62) 2019년 광둥성 불교협회에서 홍콩 및 마카오불교계와 연합하여 신년좌담회를 개최한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微言宗教, <推进大湾区建设 粤港澳佛教界代表共探交流机制>, <https://www.pusa123.com/pusa/news/fo/124996.shtml?from=groupmessage>

63) 양안과 홍콩, 마카오 불교논단(海峡两岸暨港澳佛教论坛)에서는 불교와 중화문화의 전통 및 현대(佛教和中华文化的传统与现代)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

그것은 불교계 활동을 넘어 종교 전반의 교류 활동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20일, 중앙정협공작회의에서 불교협회 부회장 옌첸(演覺)은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우호적 대외교류를 강화하여 조국통일과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여기에서 그는 이것이 중종화(中宗和)로 약칭되는 중국종교계화평위원회 사업의 일환임을 밝힌다. 중종화는 세계종교화평위원회, 아시아종교화평위원회 등의 국제조직에 상응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종교의 국제교류 창구(64)가 되고 있는데, 옌첸 부회장의 발언을 통해 홍콩, 마카오와의 교류활동을 불교계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전반의 사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전선사업의 일환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이완 불교와의 교류는 보다 활발하며 역동적이다. 무엇보다 불교협회의 중지에 해당하는 인간불교의 모델이 타이완에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0일, 타이완의 인간불교연합총회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불교계의 평화기원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법회(65)가 진먼(金門)과 샤먼(廈門)에서 4일간 개최된 일이었다. 이것은 그 바로 직전 해인 2016년,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회장이자 국가종교국 국장이었던 왕쥘안(王作安)이 불교전통사찰의 보호, 성지순례, 역대선사들의 기념활동, 사원 간의 우호조약체결, 상호간의 학술파견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의 교류를 심화하자는 제안을 한 일(66)과

다. 邢利宇, 〈港澳台佛教界人士：佛教文化交流增進兩岸與港澳關係〉, https://www.sohu.com/a/272240948_123753

64) 中宗和는 1994년 설립되어 자오푸추(趙朴初)를 주석으로 선출하였으며 그 해 11월 바티칸에서 개최된 세계종교화평위원회 제6회 대회에 대표단(沈德溶 단장)을 파견한다. 이후 아시아(亞宗和), 한국(日宗和), 일본(日宗和), 미국(美宗和), 독일(德宗和), 이탈리아(意宗和) 등 거의 모든 국가의 해당기구들과 교류를 진행한다. 이것이 중국종교의 국제교류창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내용은 中國宗教界和平委員會, 〈“中宗和”大事記〉, <http://www.cppcc.gov.cn/ccpr/2012/04/19/ART11334818329058105.shtml>

65) 佛教世界網, 〈兩岸佛教界一家親：你來我往我往你來來來往來往〉, https://www.sohu.com/a/166382092_219795

연관되어 있다. 타이완 불교와의 교류는 푸젠(福建)성에 집중되는데 타이완 불교인사들과의 친연성이 두드러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불교의 각 교파와 교리에 따라 중국 각 지역의 불교성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타이완과의 교류 활동은 타이완 불교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과거 불교에 대한 기억들과 겹쳐있기 때문에 정치적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교 불교계와의 교류 역시 문화적 귀속감과 민족적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하에 적극 추진되고 있다. 화교 불교계는 중국불교의 세계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불교의 포교활동, 중화문화의 전파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다. 다만 이미 화교들에 대한 불교포교에 안착한 타이완의 고승들, 예를 들어 법고산(法鼓山) 성연(聖嚴), 불광산(佛光山) 성운(星雲),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정연(證嚴), 중대선사(中台禪寺) 웨이쥘(惟覺) 법사,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징콩(淨空), 하이타오(海濤) 등과 같은 법사들의 활동을 능가할 고승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외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흥법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비교적 드문 예로 베이징 용천사(龍泉寺) 방장이자 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한 쉘칭(學誠)의 중국불교 국제화 사업의 예를 들 수 있기는 하다. 쉘칭법사는 2015년 네덜란드에 용천대비사(龍泉大悲寺), 2016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용천관음사(龍泉觀音寺),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박화사(博華寺)를 건립한다. 이 중 네덜란드 용천대비사는 중국대륙의 불교계에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불교도량에 해당한다. 용천사의 영향력 확대는 인터넷 환경의 적극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용천사에서는 16개 언어로 웨이보(微博)를 개통하고, ‘용천의 소리[龍泉之聲]’라는 전통문화 홈페이지, 인터넷 해외불교공부모임의 개최, 위챗[微信公號] 개설 등 일련의 인터넷

66) 王作安, 〈支持加强大陆与台湾佛教界联系〉,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61118/1442181.shtml>

을 활용한 포교전략을 실천하여 해외진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⁶⁷⁾. 그러나 그 핵심인물인 쉘칭법사가 불교협회에서 축출되면서 해외 포교활동은 새로운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불교의 해외포교는 중국의 특기인 자본살포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현장이다. 성직자의 종교적 수준에 따라 대중들의 추수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쉘칭법사가 시도한 적이 있는 아프리카 등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기독교 등의 저인망식 종교포교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뚜렷한 성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것이 불교, 혹은 종교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프레임의 구축사업과 함께 진행될 것이므로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전불교의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과의 유대강화가 주된 사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있다. 중국불교의 대일본 교류는 1955년 자오푸추 불교협회 부회장이 일본에서 개최된 핵폭탄금지세계대회에 참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다양한 방식의 사절단, 대표단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천태종, 임제종, 진언종 등 종지를 같이 하는 종파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양국의 불교관계는 인적교류, 학술교류, 문화교류 등의 방식으로 다변화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는 일본에 비해 짧지만 그 역사가 이미 20여 년을 훌쩍 상회한다. 한국의 경우, 1992년 정식의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불교교류가 이루어졌는데 1990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에 중국불교대표단이 참석한 뒤, 1991년 10월, 한국불교 조계종 지원(知元)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한중불교우호축진회의 조계산 남화사 참관이 이루어졌고, 그해 11월에는 한국불교협의회 회장 서의현스님의 중국방문이 성사되었다.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왕의 중일교류에 한국이 더해져 1995년 한·중·일 불교교류회의 제1회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67) 邢晓婧, 〈听学诚法师谈龙泉寺海外弘法〉, 《环球网》,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K4T4c>

대회는 이후 2019년 10월 30일, 중국 주하이(珠海)에서 제22회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매년 거르는 일 없이 정기적으로 개최⁶⁸⁾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삼국의 불교교류를 황금유대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와의 불법에 기초한 우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는 주로 중국의 윈난 지역이 이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전불교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계획이다. 윈난 지역은 남전상좌부 불교문화권에 속하며 이로 인해 일찍부터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등의 불교계 인사들과 잦은 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현재 불교협회에서는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발맞추어 동남아국가연맹(ASEAN) 국가들과 문화외교, 민간외교의 통로를 자임하면서 불교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여 운명공동체의 구축에 공헌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밖에 다리(大理)에서 개최되는 승성논단(崇聖論壇)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불교교류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한 예에 해당한다. 승성논단은 남전불교 뿐만 아니라 티베트불교, 한전불교에 대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승성사(崇聖寺) 주최의 불교문화학술토론회이다. 2007년 ‘화해·공영·진보’를 주제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제6회 대회에서는 ‘일대일로’의 구상에 맞추어 ‘전지구화 시대의 불교’, ‘실크로드상의 불교’, ‘불교경전, 역사와 문화’의 3가지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스리랑카,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6개 국가의 불교계 인사를 초빙하여 동남아, 남아시아의 황금유대를 결성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⁶⁹⁾된다.

68) 中韩日佛教友好交流大会는 한, 중, 일 삼국에서 번갈아 주최국이 되어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에 2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徐弘毅, 〈中韩日佛教友好交流会议在珠海举行 助力构建人类命运共同体〉,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2019-10/30/c_1125171759.htm

69) 2016崇圣论坛于2016年9月23日—25日在崇圣寺举行, 本届论坛紧扣“一带一路”伟大构想, 主题为探讨时代特色人间佛教的理论与实践, 分别探讨: 全球化时代的佛教; 丝绸之路上的佛教; 佛教经典、历史和文化。经过六届历程的不断探

다음으로 세계불교논단을 통한 교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원래 세계불교논단은 2006년 중화불교계, 그러니까 중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간의 불교계 교류를 목적으로 창립된 학회이다. 이들은 그 창립증지에서 전 지구인을 향해 6가지의 조화(六和)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6가지의 조화는 따뜻하고 선량한 인심[人心和善], 화목한 가정[家庭和睦], 조화롭고 순조로운 인간관계[人際和順], 화해하는 사회[社會和諧],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사회[人間和美], 평화로운 세계[世界和平]를 구현하여 최종적으로 화해하는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적핵심가치관의 불교 버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중화권 국가들과 가치관의 통일을 이루며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목적이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보하는 데 있고,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에 중국적 패러다임을 확대구축하는 데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향후 이상과 같은 해외교류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교류활동의 추진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계획과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향력은 심령의 해방을 성취한 소수 지도자에 의해 발휘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만한 종교적 인물을 탄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외국의 종교적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대규모 불교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제적 화제를 생산함으로써 중국불교의 건재를 전시하는 수준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일대일로와 같은 세계화 전

索后, 2016崇圣论坛走向了新的发展高度, 取得了实质性突破, 本届论坛邀请到23个国家及中国港澳台地区的近200位高僧大德、宗教官员、驻华使节和知名专家学者共襄盛会, 第一次邀请了斯里兰卡、老挝、泰国、缅甸、柬埔寨、越南等六个国家宗教官员参加, 并达成了长期合作的意向, 为打造东南亚、南亚佛教黄金纽带, 推进民间外交, 搭建和平友谊的桥梁写下了新的篇章。大理崇圣寺, 〈历届崇圣论坛回顾〉, <http://chongshengsi.com/index.php?m=content&c=index&a=snow&catid=35&id=10056>

략에 포함되어 함께 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그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확산적·팽창적 측면에서 불교중국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서, 불교의 확산과 팽창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당과 국가 영향력의 확산 및 팽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임을 확인해보았다. 본 고찰은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의 중점사업인 인재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 문화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 공익자선사업의 전개를 통한 불교중국화, 해외교류 확대를 통한 불교중국화의 측면에서 그 계획과 현실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인재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에는 11가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불교인재건설에 있어서의 정치교육, 불교학교 운영, 교육과정의 체계화, 교수 및 학생관리, 우수교사 및 유학생 지원방안, 전국불교학교 연석회의, 국제교류, 티베트불교와 남전불교 교육지원, 불교교육의 역사적 연구와 현실적 적용, 상시적 연수, 불교신도의 선발과 양성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체적으로 불교학교를 통한 인재건설은 당과 정부의 통치이념과 실천에 대한 동일시를 지향하여 실천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인재양성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되 제도화, 규범화된 교육을 통해 종교적 표준에 우선하여 분명한 정치적 표준을 갖춘 우호적 인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문화건설을 통한 불교중국화 계획은 중화민족의 동질성 강화와 사회주의적 활용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건설은 중국 전통불교문화에 사회주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 공산당 독재, 국가주의 문화 등의 신시대적 특징이 적극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익자선사업의 전개를 통한 불교중국화 계획은 자선이 불교의 보시전통과 일맥상통하는 현장임을 강조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불교 자선활동의 역사적 경험 또한 충분히 축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불

교의 자선활동은 가능하면 그 종교성을 탈각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하여 직접 자선기금회를 구성하거나, 적십자 등과 같은 사회자선단체와 연합하거나, 아니면 자선단체나 지자체에 재기부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자선 내용 역시 빈민구제, 향촌개발에 집중되는데 이를 통해 불교의 자선활동이 전면적 소강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교류를 통한 불교중국화 계획에는 중국권, 중화권, 한전불교권, 남전불교권, 아시아권, 그리고 세계적 차원으로 각 단계에 상응하는 교류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핵심은 불교 교류를 통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다만 현재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만한 종교적 인물이 출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계획은 우선 당장은 대규모 불교행사 개최를 통해 중국불교의 건재를 과시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일대일로와 같은 세계화전략에 포함되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전개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강경구, <통제적 불교관리를 통한 불교중국화의 지향과 현실>, 《中國學》 第70輯, 2020.
- 강경구 외,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의 고찰>, 《中國學》 第61輯, 2017.
-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중국종교정책과 신종교사무조례》, 신아사, 2018.
- 崔文奎, <从生态整体主义看中国佛教文化与马克思主义的共通点>, 《五台山研究》, 2020.03
- 代耀, <中国佛教协会代表团赴港出席健钊长老追思赞颂法会>, <http://www.chinabuddhism.com.cn/e/action/ShowInfo.php?classid=506&id=39340>
- 大理崇圣寺, <历届崇圣论坛回顾>, <http://chongshengsi.com/index.php?m=>

- content&c=index&a=show&catid=35&id=10056
- 邓莉雅,〈从功德会到基金会:佛教慈善组织的现代转型〉,《凤凰网佛教》, http://fo.ifeng.com/a/20151020/41493586_0.shtml
- 调研报告,〈关于办好佛教院校的实践与思考〉, <http://www.tlfjw.com/xuefo-28678.html>
- 法音编辑部,〈发扬佛教慈悲济世精神积极融入慈善公益事业〉,《佛教在线》, http://www.fjnet.com/jjdt/tj/201009/t20100908_168435.htm
- 佛教世界网,〈两岸佛教界一家亲:你来我往我往你来来来往往〉, https://www.sohu.com/a/166382092_219795
- 佛教世界网,〈40所佛教院校齐聚厦门聚焦教材建设提升办学水平〉, https://www.sohu.com/a/238398298_219795
- 凤凰网华人佛教,〈2019年全国佛教院校联席会在无锡灵山开幕〉, <https://feng.ifeng.com/c/7q2wrGP17Y0>
- 广西民宗委,〈广西“五个加强”助推宗教教职人员队伍建设〉,《广西民宗委网站》, <http://www.daoisms.org/article/sort028/info-37273.html>
- 国宗发(2012)6号,〈关于鼓励和规范宗教界从事公益慈善活动的意见〉, <http://www.chinabuddhism.com.cn/zdfg1/zcfg1/2017-07-24/13131.html>
- 国家宗教事务局 等,〈关于鼓励和规范宗教界从事公益慈善活动的意见〉, 2016. <http://www.chinabuddhism.com.cn/zdfg1/zcfg1/2017-07-24/13131.html>
- 韩立鹤,〈中国佛教协会赴云南边境地区开展慈善调研活动〉, <http://www.jsfj.net/html/fjzx/jdxw/6522.html>
- 华阅文章网,〈对中国佛教文化的认识〉, <https://www.huayue119.com/sanwen/123241.html>
- 黄夏年,〈佛教的学与修〉, <http://www.xuefo.net/nr/article52/515494.html>
- <http://www.tlfjw.com/xuefo-1296.html>
- 见忍,〈浅谈佛教慈悲济世对和谐社会的作用〉,《佛教在线》, http://www.fjnet.com/fjlw/200907/t20090713_127972_1.htm

- 嵐靖德, 〈新风尚! 看当代佛教界如何与传统文化交融浸润 共同成长〉, <http://www.sdxkjxc.com/ctwh/7612.html>
- 李利安, 〈从习近平主席系列重要讲话看中国特色佛教文化的形成、特性与精神底蕴〉, http://www.fjnet.com/shishi/nr/201812/t20181206_271896.htm
- 李映青, 〈中国首座巴利语系高级佛学院明年在西双版纳开建〉, http://www.chinadaily.com.cn/dfpd/yn/bwzg/2012-12/17/content_16023145.htm
- 丽睿关工委, 〈传承优秀传统文化, 中国洪佛寺常住僧众端午敬亲, 为老人磕头行孝〉, <https://www.meipian.cn/265mixdh>
- 明杰法师, 〈中佛协发言人介绍佛教界开展慈善公益活动情况和经验〉, <https://www.jingangjicj.com/foxuezs/16025.html>
- 南阳市佛教协会, 〈南阳市佛教寺院民主管理制度〉, http://www.cnfxh.com/news_content.asp?id=1771
- 欧洲时报网, 〈扶贫攻坚 中国在行动〉, <https://baijiahao.baidu.com/s?id=1672450229256398184&wfr=spider&for=pc>
- 三愿吉祥文化联谊会, 〈践行三愿之老人吉祥愿——迎中秋“五云寺”、“石佛寺”僧众看望慰问贫困老人〉, <https://www.meipian.cn/2dhe50r6>
- 释振辉, 〈谈佛学院校的僧格教育〉, http://blog.sina.com.cn/s/blog_9c2f907d01015a2k.html
- 统战新语, 〈40位学僧喜获藏传佛教“拓然巴”高级学衔, 这可不是容易事儿〉, <https://baijiahao.baidu.com/s?id=1634336952301625821&wfr=spider&for=pc>
- 王艺霖, 〈习近平对中国传统文化的创造性转化和创新性发展〉, <http://theory.people.com.cn/n1/2016/0203/c40531-28108648.html>
- 王作安, 〈支持加强大陆与台湾佛教界联系〉, <http://www.cankaoxiaoxi.com/china/20161118/1442181.shtml>
- 魏道儒, 〈人类文明和谐共生的样板: 中韩佛教文化共建〉, 《世界宗教研究》, 2020.02.

- 惟贤法师,〈弘扬佛法既要注重三大传统也要加强五大建设〉, https://fo.ifeng.com/banruojiangtang/detail_2014_07/23/37479196_0.shtml
- 微言宗教,〈同根同源共饮濠江水 法乳一脉合筑同心圆——内地与澳门佛教界20年交流回顾〉, https://www.sohu.com/a/361850487_120109092
- 微言宗教,〈推进大湾区建设 粤港澳佛教界代表共探交流机制〉, <https://www.pusa123.com/pusa/news/fo/124996.shtml?from=groupmessage>
- 吴飞,〈推动中国特色佛教文化传承与发展〉, 中国社会科学网, http://www.cssn.cn/zjx/zjx_yc/201905/t20190507_4875299.shtml
- 习近平,〈全面提高新形势下宗教工作水平〉,《新华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23/c_1118716540.htm
- 邢利宇,〈港澳台佛教界人士:佛教文化交流增进两岸与港澳关系〉, https://www.sohu.com/a/272240948_123753
- 邢晓婧,〈听学诚法师谈龙泉寺海外弘法〉,《环球网》, <https://world.huanqiu.com/article/9CaKrnK4T4c>
- 徐弘毅,〈中韩日佛教友好交流会议在珠海举行 助力构建人类命运共同体〉,《新华网》, http://www.xinhuanet.com/2019-10/30/c_1125171759.htm
- 徐艺乙,〈佛教文化中的文化遗产保护〉,《凤凰佛教》, <http://m.tlfiw.com/xuefo-2175.html>
- 月悟法师,〈坚持正确的办学方向〉, <http://www.xuefo.net/nr/article62/616702.html>
- 湛如法师,〈明确办学方向,培养合格僧才——在2005年江苏省佛教院校工作座谈会上的讲话摘要〉, <https://honghuashe.com/newsinfo/446673.html>
- 张琪,〈现代佛教寺院的教育功能——从课程设置浅析中国大陆汉地佛教院校教育〉,《佛学研究》,2010年.
- 张蔚萍,〈学习和领会习近平总书记关于传承弘扬 中华优秀传统文化的论述〉,《清风官网》, https://www.sohu.com/a/307280018_100101617

中国佛教协会, 〈中国佛教协会章程〉, <http://www.chinabuddhism.com.cn/djc/xdzc/2015-04-27/8701.html>

中国佛教协会, 〈2018年中国佛教协会留学生奖学金申请通知〉, <http://www.chinabuddhism.com.cn/xzzq/xzzq1/2018-09-27/40.html?from=groupmessage>

中国佛教协会, 〈坚持佛教中国化方向五年工作规划纲要〉(2019~2023)

中国宗教界和平委员会, 〈“中宗和”大事记〉, <http://www.cppcc.gov.cn/ccrp/2012/04/19/ARTI1334818329058105.shtml>

州民宗局, 〈中国巴利语系高级佛学院建设项目社会稳定风险评估公示〉, https://zmzj.xsbn.gov.cn/306.news.detail.dhtml?news_id=2475

< Abstract >

The five-year plan for Sincization of Buddhism includes eight key projects. This paper focuses on four projects that focus on spreading Buddhism management. Among the eight major projects for Sincization of Buddhism, the first four projects have strong control and convergence, and The latter four projects are proliferating and expanding. This plan includes the Sincization of Buddhism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uman resources, the construction of culture, the development of public charity projects, and the expansion of overseas exchanges. The core of the Sincization of Buddhism through human resource construction is in human resource construction through Buddhist schools, and This is being practiced with the aim of identifying the party and government's ruling ideology and practice. The Sincization of Buddhism through cultural construction aims to strengthen the homogeneity and socialist use of the Chinese people. The Chineseization of Buddhism as a public

charity project promotes charitable activities, but aims to break away from religion. The Sinicization of Buddhism through overseas exchanges is promoted at the level of China, The China circle, chinese Buddhism circle, Southern Buddhism circle, and the Global dimension. It is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China's influence, especially through Buddhist exchanges.

Key Words : 불교중국화 5개년 계획(Five year work plan for the Sinicization of Buddhism), 확산적(diffuse), 인재건설(human resource construction), 문화건설(cultural construction), 공익자선사업(public charity project), 불교해외교류(Buddhist exchanges)